

## 나가사키 중심의 기리시탄 관련 연표

### 그리스도교의 전래와 번영

1549년

예수회 선교사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일본에 그리스도교를 전파함

[이미지 01]

『성 하비에르상』(고베 시립 박물관)

1550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히라도에서 포교 활동을 시작함

1562년

오무라 스미타다가 요고세우라(현 사이카이시)를 개항함

1563년

시마바라 반도에서 포교 활동이 진행됨

오무라 스미타다가 세례를 받고 첫 기리시탄 다이묘(영주)가 됨

[이미지 02]

『일본 순교 정화(精華)』에 수록된 오무라 스미타다상

1566년

포교를 위해 루이스 드 알메이다 등의 선교사들을 고토로 초청

1569년

나가사키 최초의 교회 도도스 오스 산토스 교회(제성인 교회)가 건립됨

1570년

오무라 스미타다가 나가사키 개항을 결정함

1571년

첫 포르투갈 선박이 나가사키에 입항함

1580년

아즈치와 아리마(현 미나미시마바라시)에 세미나리오(수도사 육성을 위한 초등교육기관), 분고에 콜레지오(성직자 육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가 설립됨

오무라 스미타다가 예수회에 나가사키의 6개 마을과 모기(현 나가사키시)를 현납

1585년

4명의 덴쇼켄오 소년 사절단이 교황 그레고리오 13세를 알현함

[이미지 03]

덴쇼켄오 소년 사절단, Augsburg Newe Zeyttung(교토 대학교 부속도서관)

기리시탄에 대한 탄압

158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리스도교 신부의 추방령을 공포함

[이미지 04]

‘바테렌(신부) 추방령’(마쓰우라 사료 박물관)

158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나가사키, 모기, 우라카미를 직할령으로 포함시킴

1590년

덴쇼켄오 소년 사절단이 귀국하면서 서양의 활판 인쇄기 등을 가져옴

1593년

프란치스코회 선교사 베드로 바우티스타가 일본을 방문하여 동 회의 일본 내 포교 활동을 시작함

1596년

우라도에서 스페인의 갤리온선이 난파하는 산 펠리페호 사건이 발생함

1597년

일본 26 성인(선교사와 일반 신자)이 처형되어 순교함

1601년

나가사키의 곳에 설치된 일본 주교구 대신학교에서 일본인 최초 사제 2명이 서품을 부여받음

1602년

도미니크회와 아우구스티노회의 선교사가 일본을 방문함

1603년

『곤치리산노리야쿠』가 편찬됨

[이미지 05]

『곤치리산』 사본(나가사키시 소토메 역사 민속 자료관 소장)

1605년

나가사키 지방관이 오무라령 나가사키무라를 쇼군의 직할령으로 삼고 우라카미무라 북부를 환지로 지정함

1612년

오카모토 다이하치 사건

막부 영지 내에 그리스도교 금지 명령이 내려짐

1613년

다테 마사무네가 하세쿠라 쓰네나가를 사절로 유럽에 파견함

1614년

일본 전국에 금교령(禁教令,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금지한 법령)이 공포됨

1614년

선교사가 국외 추방됨(이후 선교사가 수차례 일본 잠입을 시도함)

교회 등 그리스도교 관련 시설이 파괴됨

1616년

중국 선박을 제외한 외국 상선의 기항지가 히라도와 나가사키로 제한됨

1619년

나가사키에서 고발자 현상금 제도로 인한 기리시탄 적발이 시작됨  
교토의 대순교(신자 52명이 처형됨)

1622년

겐나의 대순교(선교사와 신자 55명이 처형됨)

1623년

에도의 대순교(선교사와 신자 50명이 처형됨)  
마닐라의 도미니크회와 프란치스코회, 아우구스티노회가 합동으로 일본에 잠입함

1624년

스페인 선박의 일본 내항 및 도항이 금지됨

1626년

나가사키 부교인 미즈노 가와치노카미 모리노부가 나가사키 주민에게 신앙을 포기할 것을 명령

1627년

시마바라반도의 영주 마쓰쿠라 시게마사가 운젠 지고쿠에서 기리시탄의 고문을 시작함

1628년

그리스도교에서 유래된 그림을 밟게하는 후미에가 도입됨

1629년

나가사키 부교 다케나카 우네메노카미 시게요시가 나가사키의 기리시탄 탄압을 강화함

1633년

호쇼센(해외 무역이 허가된 선박) 이외의 선박은 일본 해역으로 진입이 금지됨

예수회 선교사 크리스토방 페레이이라가 신앙을 포기함

1634년

『바스찬의 교회력』(기리시탄력)이 편찬됨

1635년

일본인의 해외 도항과 귀국이 전면 금지됨

다이묘(영주)와 하타모토(쇼군 직속 가신)가 데라우케 제도(그리스도교 신자에게 개종을 강제할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를 바탕으로 영내의 엄격한 신앙 조사를 실시하도록 명함

1636년

나가사키에 데지마라는 이름의 인공섬을 완성해 포르투갈인에게 데지마에 이주할 것을 요구함

[이미지 06]

가와하라 게이가 《데지마도》(나가사키 역사 문화 박물관)

1637년

시마바라·아마쿠사의 난이 발발하며 봉기군이 하라 성에서 농성함(다음 해에 함락)

1638년

일본 전국에서 고발자 현상금 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기리시탄 적발이 시작됨

1639년

포르투갈 선박의 내항이 전면적으로 금지됨

1640년

오메쓰케 이노우에 지쿠고노카미 마사시게를 신앙 조사의 책임자로 임명함

1641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상관이 히라도에서 데지마로 이전됨

1642년

예수회의 선교사 안토니오 류비노 신부가 일본에 잠입한 후 다음 해에 마르케스 신부도 일본에 잠입함

1644년

마지막 선교사인 고니시 만쇼가 교토에서 순교함

1657년~

오무라 번에서 대규모 기리시탄이 적발된 '고리쿠즈레'로 인해 400명 이상이 처형됨  
소토메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전도사 바스찬이 처형됨

1660년~

분고쿠즈레(분고노쿠니에서 대규모 기리시탄이 적발된 사건)

1661년~

노비쿠즈레(오와리노쿠니와 미노노쿠니에서 대규모 기리시탄이 적발된 사건)